



판결로 확인하는 사건의 결과

납품 분쟁에서 돌아온 6억 7천만 원 청구, 해율은 반소 전부 기각을 이끌었습니다.

약 6억 7천만 원 반소 기각

반소 전부 기각

일부 손해 상계 후 물품대금 잔액 지급 인정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8민사부

판 결

사 건

물품대금

물건인도 등 청구

원고(반소피고)

법무법인 해율

피고(반소원고)

변론종결 2026. 5. 26.

판결선고 2026. 8. 18.

주 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8,628,696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12. 16.부터 2026. 8. 18.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원고(반소피고)가 20%,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01 의뢰인이 마주한 문제

의뢰인 회사는 상품을 제조해 납품하는 과정에서 거래처와 발송 지연 및 대금 정산을 다투게 되었습니다. 거래처는 인건비, 판매 손실, 광고비와 부자재 관련 손해 등을 이유로 약 6억 7천만 원을 반소로 청구했습니다.

의뢰인이 받아야 할 물품대금과 상대방이 요구한 배상이 동시에 걸린 사건이었습니다. 사업에 큰 부담이 될 청구액이 실제 손해와 일치하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02 결과를 가른 쟁점

법원은 발송 지연과 관련된 의뢰인의 책임 자체는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계약 위반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이 주장한 모든 비용이 배상 대상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손해 항목별 발생 여부와 인과관계를 따로 검토했고, 광고비 등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일부 인정된 손해는 의뢰인의 미수 물품대금과 상계되어, 추가로 지급할 반소 채권이 남는지가 다시 판단되었습니다.

일부 손해 상계 후 물품대금 잔액 지급 인정

사업을 흔드는 분쟁, 이제 책임과 대가를 분명히 하십시오.

약 6억 7천만 원을 반소로 요구한 거래처. 해율은 일부 손해 상계 후 반소 전부 기각과 대금 잔액 지급을 이끌었습니다.

- 납품 지연을 이유로 거래처가 거액의 손해배상을 요구한다면?
- 광고비와 인건비까지 전부 떠넘기려 한다면?
- 받을 물품대금은 주지 않으면서 반소를 제기했다면?

결과를 만들어낸 해율에 맡기십시오.

이제 당신의 편에서 싸우겠습니다.



03 법무법인 해울과 함께한 소송

법무법인 해울은 납품업체인 의뢰인을 대리하여 본소와 반소에 대응했습니다. 재판에서는 계약의 효력, 대금 잔액, 손해 항목 및 부자재 반환 가능성 등 여러 쟁점이 다뤄졌습니다.

의뢰인의 계약 유지 주장이 모두 받아들여진 것은 아니지만, 상대방의 거액 요구가 그대로 인정되지도 않았습니다. 잘못이 있는 부분과 그로 인해 실제 부담할 손해를 구분하는 대응이 중요했던 사건입니다.

04 판결 결과와 의미

법원은 상대방의 반소를 전부 기각하고, 일부 손해를 상계한 뒤 남은 물품대금을 의뢰인에게 지급하도록 명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에게 아무 책임도 없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약 6억 7천만 원의 추가 지급 요구를 막고 정산 후 잔액 지급을 인정받은 결과입니다. 납품 문제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거래처의 모든 손실을 떠안을 필요는 없음을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약 6억 7천만 원을 반소로 요구한 거래처. 해울은 일부 손해 상계 후 반소 전부 기각과 대금 잔액 지급을 이끌었습니다.

잘할 수 있다는 변호사는 많습니다.

해울은 이미 해낸 결과로 답합니다.

약 6억 7천만 원을 반소로 요구한 거래처. 해울은 일부 손해 상계 후 반소 전부 기각과 대금 잔액 지급을 이끌었습니다.

- 실제 손해와 청구액 사이에 큰 차이가 있다면?
- OEM 계약 해지와 부자재 반환 문제가 함께 생겼다면?
- 일부 잘못은 있지만 과도한 배상 요구는 막아야 한다면?

결과를 만들어낸 해울에 맡기십시오.

이제 당신의 편에서 싸우겠습니다.